안동권씨의 명가세가名家世家

세칭 ‘ 열두정문 ’의 충렬공 수와睡窩 權順長 일가 [상]

강화도 병자호란시 노복까지 15인이 산화한 백세청절百世淸節

▲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에 있는 충렬사

▲ 충렬사의 신문과 사당

• 세계世系

충렬공忠烈公 휘 순장順長은 자가 효원孝元이고 호는 수와睡窩이며 선조 40년, 1607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임진왜란의 7년 전쟁이 그치고서 8년쯤이 지난 무렵이었다. 추밀공파樞密公派 정헌공正獻公(14世 계림부원대군鷄林府院大君 영도첨의정승領都僉議政丞 왕후王煦)계로서 시조후 24세손이다.

그 고조부 목사공牧使公 휘 박博은 자字가 사원士元이고 효행으로 천제되어 중종조에 여러 벼슬을 거쳐 상주목사尙州牧使에 이르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그 묘소가 양주시 옛 회천읍 덕계동의 마지馬池 안쪽에 있는데 신도비문을 영의정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이 짓고 석봉石蜂 한호韓濩가 글씨를 썼다.

증조부 월담공月潭公 휘 덕여德輿는 자가 치원致遠, 호는 월담 외에 학봉鶴峰이며 20세에 사마시를 하여 의금부도사 등을 지내다 별시문과를 하여 삼사三司의 청환직淸宦職을 두루 거쳐 도승지와 홍문관 부제학 등을 지내며 9년 동안 지제교知製敎와 춘추관직을 겸대하였다. 외직으로 성주星州·광주光州의 목사, 춘천부사, 황해감사 등을 지내고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율곡栗谷 이이李珥,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더불어 교의交誼가 좋았는데 율곡이 조정에서 탄핵을 받자 임금 앞에서 직언으로 변호하였으며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불러도 오지 않아 임금이 탄식하니 ‘ 이황은 현자賢者라 작위로 부르지 마시고 사직을 허하시며 특별히 부르시라 ’ 하여 퇴계가 올라오게 했다는 등의 일화를 남겼다. 묘소는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수대곡水大谷(수대울)에 축좌丑坐로 최존위最尊位이고 묘하에 있는 신도비는 비문을 좌의정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가 짓고 우의정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이 전篆하였다.

조부 풍담공楓潭公 휘 극중克中은 자가 택보擇甫이고 호가 풍담이며 명종 15년, 1560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여 우계 성혼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30세에 진사를 하고 일사逸士로 지내면서 예빈시와 금화사禁火司 등에 무릇 다섯 차례 천제薦除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선조말년에 동궁東宮을 보도할 인물로 극선되어 왕자사부王子師傅와 내시교관內侍敎官으로 나갔는데 스승 우계가 모함과 탄핵을 받는 것을 보고 기관한 다음 광해조에서 세자익위사 세마洗馬로 나갔다가 10여일 만에 그만두고는 거듭 불러도 다시는 나가지 않았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월사 이정귀와 선교善交하였으며, 사칠변四七辨을 저술하고 7권의 문집을 남겼다. 자헌대부 좌참찬左參贊으로 추증되고 묘소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수대곡 선고 묘하에 있다. 그 비문을 포저浦渚 조익趙翼이 짓고 육곡六谷 서필원徐必遠이 썼다.

부친 초려공草廬公 휘 진기盡己는 자가 이서而恕 또는 여실汝實이고 호는 초려이며 선조 10년, 1577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여 30세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에 들어 응교應敎 등을 지내고 도승지를 거쳐 형조참판에 이르고, 외직으로 나가서는 황해·경기관찰사에 개성부유수留守를 지내고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도 다녀왔다. 광해군 때 모후母后를 폐하려는 의논이 일 때는 이에 반대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백관을 숙연케 하였다. 인조 7년, 1629년에 53세로 졸하여 뒤에 자헌대부 예조판서로 추증되었으며 묘소는 양평군 양동면 모도동 慕道洞에 축좌丑坐로 있다.

이러한 초려공은 증정부인贈貞夫人 의령남씨宜寧南氏 이조참판 언경彦經의 딸을 초취하고 정부인 평창이씨平昌李氏 별좌別坐 정직廷直의 딸을 재취하여 3남3녀를 낳았는데 충렬공은 그 장남이다.

• 생애와 사적

일찍부터 총명영오聰明穎悟했던 충렬공 휘 순장은 가학家學으로 면려하여 18세가 되던 인조 2년, 1624년의 식년시式年試에 서울 거주 유학幼學의 신분으로 진사進士에 2등 제14인으로 입격하였다. 식년시란 4년마다 시행하던 공식의 정기 과거이며 이 식년시에서 생원生員과 진사를 선발하는 사마시司馬試 양장兩場에서 진사과에 급제하였는데 사마시 급제자는 공식으로 일컫기를 급제가 아닌 ‘ 입격入格 ’이라 하였다. 그리고 2등이라 하는 것은 입격자를 1,2,3급으로 분류한 것이고, 제14인이란 2급 입격자 중 14등임을 말한다. 어쨌든 약관에 사마시를 한 공은 성균관에 들어가 전국의 명문가 수재들과 교유를 넓히며 학문을 강마하였는데 나라에서 인재라 하여 건원릉 참봉參奉을 제수하고 다시 빙고별좌氷庫別坐와 의금부 도사都事 등을 배하였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고 강마講磨에만 전심하였다. 또 5대의 종손으로서 봉제사 등의 책무가 큰데다 23세에 부친상을 당해 복상을 하느라 과업이 늦어졌다.

그러던 중 인조 14년, 1636년 초 동한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 서울이 함락되기를 당할 제 모친 정부인 이씨를 모시고 일가가 강화江華로 피란하였다. 이보다 앞선 인조 13년, 1635년 12월에 만주의 호병胡兵이 급히 쳐들어오니 창황한 조정이, 임금은 백관을 거느리고 급히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파천播遷케 하고, 종묘宗廟와 왕대비 및 세자대군世子大君·빈궁嬪宮 등은 강화江華로 피란시켰다. 그러면서 영의정 김류金 의 아들인 한성판윤漢城判尹 김경징金慶徵을 종묘의 봉사주奉祀主 겸 강화도검찰사檢察使로 하여 강화를 지키게 하였다. 김경징은 검찰부사檢察副使 이민구李敏求 및 현지 강화유수留守 장신張紳과 함께 사태를 얕보는 것인지 강화를 ‘ 금성탕지金城湯池 ’라 이르면서 물을 두려워하는 만주의 호적胡敵이 해협 염하鹽河를 건너 감히 범하지 못할 것이라 믿고 방비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였다. 아버지 김류는 영의정으로서 왕을 호종해 남한산성으로 가고 아들 김경징은 한성판윤으로서 왕실의 신주를 모시고 강화로 가 분사分司를 차렸으니 부자가 위국진충의 핵인 셈이었다. 분사란 일을 나누어 맡는다는 뜻인데 경연청經筵廳의 별칭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조정朝廷을 나눈 한쪽을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 김류는 인조반정의 공으로 정사靖社공신 1등에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이 되었고 아들 김경징도 같은 정사공신 2등으로 순흥군順興君이었다. 게다가 김경징은 반정 후에 문과도 급제하여 도승지를 거쳐 판윤에 오른 경대부였다.

이와 같은 김경징의 처사이니 누가 제어할 길이 없는데 공이 분개하여 연하의 성균관 생成均館生 선비 김익겸金益謙·심희세沈熙世·윤선거尹宣擧와 함께 글을 보내 ‘ 와신상담臥薪嘗膽이 지금 일이요, 술을 마실 때가 아니다 ’ 하였으나 김경징은 오히려 화를 내며 방수를 게을리 하니 식자들이 탄식했다. 이에 공이 강개하여 ‘ 임금의 안위를 알 수 없으니 나와 더불어 강나루 시석지간矢石之間으로 나갈 자가 있는가. 이같이 하는 것이 승패에는 보탬이 없다 해도 홀로 편히 앉아 밥이나 축내며 시일을 허송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 하니 선비들이 수성守城을 다짐하며 모여들었다. 무리를 의려義旅라 칭하고 분사에 가 합류하니 모두 서생들인지라 공격에는 적합지 않으나 방비에는 넉넉히 쓸만하였다, 이윽고 적이 해협을 뒤덮으며 섬으로 건너와 갑진甲津의 성을 무너뜨리고 물밀 듯 쳐들어오니, 고려 시대 몽고군이 30년을 두고도 건너지 못한 염하만 믿고 있던 관군은 싸워보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고 김경징 등은 나룻배를 타고 달아나 버렸다.

적군은 무인지경으로 휩쓸며 도륙과 겁략을 자행하는데 빈궁위사嬪宮衛士로서 강화로 피해온 왕실 비빈妃嬪을 호위하며 성의 남문南門을 지켜 막던 공은 선비들과 필순必殉을 맹세하고 성이 함락되기에 이르러 두 아우 생원生員 순열順悅과 순후順厚를 보내 노모를 구해 피란시키게 한 다음 망극통탄罔極痛歎하여 ‘ 종사宗社가 윤망淪亡하는데 어찌 살랴 ’ 하고 우의정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생원 김익겸과 함께 화약 상자를 안고 자폭하였다. 인조 15년, 1637년 정월 22일로 공의 나이 31세였다.

하인 의남宜男이 그 시신의 부분을 수습해 가매장을 하여 나무를 깎아 목비木碑를 세워 놓고는 또한 그 앞에서 스스로 목찔러 종순從殉하였다. 한편 송정촌松亭村에서 난을 피하고 있던 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가 공의 분사 소식을 듣고 욕을 당하기 전에 종순코자 하니 슬하의 어린 세 딸아이와 조금 자란 두 아들이 먼저 죽고 부인도 목찔러 자결하였다. 이미 일가가 노복까지 8인이 순사했는데 그 뒤를 이어 공의 두 아우 순열과 순후가 모부인을 겨우 피신시키고 전진중에 순국하고, 13세 난 누이 처자處子가 또한 욕을 피해 자결하여 11인으로 늘었다. 그리고 공의 숙부 월포공月浦公 휘 경기儆

▲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수대곡의 최존위 월담공의 묘소